

○● 특 집 도서관의 문화활동 의미와 전략

## 책 읽는 도시 속의 도서관



차미옥 장유도서관 사서, libcha@hanmail.net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서관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일까?’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는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도서관으로 가는 첩경은 관중과 지역을 불문하고, 그 도서관의 봉사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작업이 모든 계획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며 프로그램의 생명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유도서관은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위치하고 있다. 장유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신도시로서 토착인구가 10% 이하이고 대부분이 인근 부산이나 창원지역에서 유입되어 도시가 형성된, 인구의 16%가 미취학 아동인 아주 젊은 도시이기도 하다. 신도시 개발 초기단계에 계획되어져 세워진 장유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

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 공간뿐만 아니라 극장식 공연장과 강의실 등을 두루 갖추으로써 지역의 복합적인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도서관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게 되었다.

장유도서관이 운영하는 강좌 프로그램은 유아·초등·성인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주·야간으로 140여개에 이른다. 프로그램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지역의 연령층 특성 때문에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둘째, 평생학습 강좌와는 별도로 독서진흥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계층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독서관련 프로그램은 사서와 전문 강사가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책 사냥터’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책놀이 프로그램’은 매주 일요일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가족 대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

그럼은 2005년 도서관주간 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직후 참여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의해 상시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월별로 주제와 도서를 선정한 후 3주 동안 동화구연가가 도서를 읽어주고 손가락인형, 색칠하기 등 다양한 놀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반복하고 마지막 주에는 독서지도사가 3주 동안 진행되어온 주제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책놀이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하나를 소개하면 지난해 11월에 진행하였던 ‘겨우살이’라는 주제를 들 수 있다. 『아기 곰의 가을나들이, 데지마 게이자부로』(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가을견이를 통하여 먹이를 갈무리하는 내용)이라는 도서를 읽고 놀이를 한 뒤 4주차에는 김장담그기 체험을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아동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높여 도서관으로 발길을 향하게 하고 있으며, 연인원 1,700여명이 참가하는 매우 비중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책 읽는 재미를 뛰어 넘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가족독서골든벨’은 독서를 통하여 가족간의 대화와 화합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 간의 일체감을 형성해보자는 데 의의를 둔 프로그램이다. 도

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토론할 거리가 있는 도서’ ‘이웃의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선정하였고 도서관과 김해의 이야기를 다룬 도서를 주변도서로 선정하였다. 그동안의 선정도서는 2005년도 『아주 특별한 우리 형』(고정욱), 2006년도 『주몽의 나라』(주호상), 2007년도 『무덤속의 그림』(문영숙)이었다. 또한 골든벨 문제로는 주로 선정도서의 내용과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상식 등과 함께 김해시에 관련된 문제 등을 출제함으로써, 평소 모르고 있었던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첫 행사는 비교적 작은 규모인 도서관 내부 행사로 시행하였으나, 2006년 제2회는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사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는 지역방송과 연계하여 행사를 기획, 방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 행사를 전시행정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 내의 문화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생각이 자라는 글쓰기교실’은 학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한 뒤 3개월 단위로 수업을 진행하고



① ②

① 인형극  
② 가족독서골든벨

있다. 제1기(3-5월)는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역사와 관련해서 ‘지도와 신화로 풀어보는 역사여행’, ‘그림책 속에 숨어있는 역사 배경 찾기’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제2기(6-8월)는 4학년을 대상으로 ‘시사와 그림책’이라는 주제 하에 ‘환경과 전쟁에 관련된 그림책과 신문기사’, ‘소수자의 인권’ 등으로 진행하였다. 진행 방식은 도서를 한 주 전에 제시하여 학생들이 사전 조사와 함께 읽어 올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은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이 참관하여 학생들의 토론 모습을 지켜보게 하여 수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그 결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제1기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역사 관련 수업의 심화반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③ 글쓰기수업

이외에도 도서관토요교실, 독서탐방, 독서토론회, 유아극장 등의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참가대상자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독서와 도서관 문화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그 변화의 물결이 “책 읽는 도시 김해”라는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독서 문화를 통해 길러지는 상상력과 성찰의 힘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도모하고 나아가 도서관 인프라로 인해 미래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가 되고자 “책읽는 도시 김해”를 선포하여,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협약을 맺고 10대 시책을 공유하게 되었다.

10대 시책의 주요 내용은 ① “책읽는도시 김해” 종합계획 수립 ② 민관합동의 위원회 구성 ③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④ 어린이 전용도서관인 ‘기적의도서관’ 건립 ⑧ 사회적 육아지원 운동인 북스타트 실시 ⑩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을 양성하기 위한 김해시와 책사회의 공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책읽는도시 김해” 프로젝트는 우리 시를 ‘시민 모두가 독서의 매력에 빠진 도시, 책의 향기가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독서진흥 프로그램 등이 “책읽는 도시 김해”의 초석이 되었고,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도서관이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도서관이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장유도서관은 차기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지체장애인 도서택배 제도로 시작한 ‘품안에 도서대출’을 시각장애인까지 확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실버(노인)자료실 운영의 내실화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도서관, 도서관의 진정한 역할에 대한 우리의 고민에 해답을 제시해줄 열쇠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책 읽는 도시 속의 도서관을 그려본다. 